

국제개발행정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정부경쟁력 관점에서*

임도빈**
조원혁***
차세영****
정지수*****
이민이*****

..... <目	次>
I. 서론	III. 분석결과
II. 이론, 자료, 그리고 연구방법	IV.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제3세계의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행정을 도와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국제개발(행정)을 연구할 때, 주로 어떤 하위 주제(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행정)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World Development」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2,013개의 논문들에서 3,779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기에 따라 부상하는 키워드(문제)와 하락하는 키워드(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났고, 이들 키워드들 간의 중심성과 클러스터(cluster)의 측면에서 특성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하부연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와 정부경쟁력 지표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국제개발행정, 발전행정, 정부경쟁력, 네트워크분석】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0-B00195)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tobin@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박사후(Post-Doc) 특별연구원 (wonhyukcho@gmail.co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chasy516@gmail.co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jsjeong@sn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leeminah83@gmail.com)

논문접수일(2013.5.13), 수정일(2013.6.18), 게재확정일(2013.6.20)

I. 서론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초의 동기는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은 정부의 높은 경쟁력에 의해서 가능하였다고 보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였다. 과연 선진국으로 도약을 갈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진실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의 급격한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50년대에는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소위 선진국 그룹에 합류하였다. 1963년 USAID의 도움으로 미국에 초청연수를 가기 시작했지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마침내 1987년부터는 거꾸로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 공식적으로 공식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는 차원에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지위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전환된 것과 행정학 연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60년대의 냉전시대에 미국은 외국에 원조를 하면서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고민한 바 있다. 이것이 비교행정론과 국제개발행정론을 탄생시켰다. Riggs(1964)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과 Heady(1966)의 “행정학: 비교의 관점(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이 대표적인 저작물인데, 우리나라에 ‘발전행정론’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었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행정학과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들은 현재에도 국제개발행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행정학계에서 Riggs의 비교행정론이 너무 서구적 시각에서 2분법적 사고를 한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서서히 교과목으로 위상이 퇴조되는 것과 같이하여 우리나라 대학도 비교행정의 비중이 감소하였다(임도빈, 2011). 그동안 거버넌스 논의 등 한국행정학이 외연을 많이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위과목이어야 할 비교행정학이 퇴조하기 시작한 현상은,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이 핵심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우리 행정학계의 연구저하는 우리가 공식개발원조(ODA) 공여국이 된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못한 연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공여국으로 갑작스런 지위변화는 학문적 연구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이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행정학만큼 적합한 학문이 없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국제개발행정론 연구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세계화시대인 오늘날 국제적으로 개발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뤄진 국제개발행정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는 메타분석

(meta analysis)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오래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많은 서구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곧 이들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이들 국가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경향이 곧 국제개발행정의 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단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한 후, 그 해결방법으로 국제개발행정의 방향성을 암묵적으로나마 암시받아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국제개발행정론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World Development」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학술지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의 연구를 다루어 왔는지, 또 각 주제(키워드)들 간에는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 자료, 그리고 연구방법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은 강한 국가의 존재와 정책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성장을 이끌었다 (Cheng, 1990; Park, 2011; Im & Park, 2010; Kwon, 2010; 김시윤, 2004). 또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 영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Toigo & Woods, 2006).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개발행정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후, 본 연구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서술코자 한다.

1. 국제개발행정론의 변천과정

국제개발행정론은 지난 60년의 시간 동안 계속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직후부터 학계 및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였다 (Escobar, 1995; Marglin & Schor, 1991). 이것은 대체로 농업 중심에서 산업화 혹은 공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오랫동안 산업화에 힘을 실어준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은 전쟁의 시작

1) 국가경쟁력 혹은 경쟁력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면, 비즈니스 친화적인 용어의 특징으로 인해 해당 연구들의 결과도 경영학 측면에 치우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한계가 있다.

과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발생한 서구국가 식민지들의 독립이었다. 대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나라는 가난한 상태로 독립을 하였기 때문에 식민종주국에 종속을 벗어날 수 있는 빠른 발전을 피하고자 하였다.

전쟁 이후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제3세계 국가 정부는 그들의 산업과 사회기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을 손에 넣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전략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Easterlin, 1981; Nelson, 1990; Sen & Grown, 1988). 우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성장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을 만큼 빠르지 못했다. 각 국가의 산업 발전 역시 생산되는 것 보다 소비되는 자원의 양이 더 많았고, 이러한 자원의 낭비는 비효율적인 정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전쟁 이후의 경제 호황은 1970년대에 끝이 났고, 국가주도 발전의 한계는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Ake, 1996; Chang, 2002; Killick, 1983). 마르크시즘이나 네오마르크시즘이 그 영향력을 증대하였다. 즉,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른바 발전에 대한 좌·우익 관점의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저성장의 원인이 빈곤국가 자신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국제개발행정 연구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는 포스트모던 사상과 반세계화 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후 개발주의 이론(post-development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후 개발주의 이론은 이전의 개발 이론이 이야기하는 개발이 애초에 국민들의 삶을 더 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대한 외적 통제를 쌓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Storey, 2000; Matthews, 2004; Pieterse, 2000; Ziai, 2007).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신고전주의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성공적인 경제개발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가 주도 개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 하는 듯한 소위 ‘개발국가론(developmental-state model)’이 일시적으로 큰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Johnson, 1999; Leftwich, 1995; Öniş, 1991; Sinha, 2003; Woo-Cumings, 1999). 이와 같이 최근의 많은 국제개발 관련 문헌들이 제3세계 공공 분야의 행정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경쟁력 제고가 이러한 고민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크게 보면 국제개발행정론은 내용적으로 새로운 변수를 계속하여 추가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예컨대, 환경 문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중요하게 거론되면서 국제개발행정 연구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오염과 공해를 만들어냈고, 이를 멈추고 가능하면 되돌리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이런 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보화, 비정부기구(NGO)의 발전, 시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등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선진국의 문제와 후진국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개발행정의 문제가 이와 같이 혼란스럽게 인식되고 이

러한 해결책에 대해 많은 이론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런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발전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펴본 대로 국제개발행정 연구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나 강조점이 시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UN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던 U. Thant가 언급한 “개발은 단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성장에 변화를 더한 것이다 (Development is not just economic growth, it is growth plus change).”라는 말을 통해서도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과거 경제성장으로 축약되어 오던 개발(development)의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변화(change)를 주요 키워드로 두는가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개발행정론은 용어사용 면에서도 학계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처음 소개될 때 1세대 학자들은 ‘발전행정’이라고 번역하였고, 지금까지도 이 표현이 교과서 제목이나 강의 과목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행정’ 또는 ‘국제개발행정’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발전’과 ‘개발’을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에 해당되는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낙후 지역을 돕는 국제개발원조를 전제로 한 연구에는 ‘발전행정’ 대신 ‘개발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발전’은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자국의 부족한 부분을 자국 스스로 그리고 질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외부적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상의 구분은 상당히 타당하며, 본 연구도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개발’ 또는 ‘개발행정’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수 있어도, 실제 이것을 용어로서 사용하였을 때는 몇 가지 인식 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개발행정이 도시학에서 말하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계획상의 지역개발처럼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제개발행정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발’이나 ‘개발행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불도저식 도시 난개발 등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어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표현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국제개발행정론이 기존의 ‘발전행정론’과는 다른 분야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이후에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켜가면서 연구자들이 잘 다듬고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행정론(interna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관련 연구의 대표적 저널이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슈를 다루고 있는 학술지인 「World Development」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73년부터 출간을 시작한 이 저널은 국제개발행정론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학술지는 Thomson Reuters의 학술지인용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에서 집계한 사회과학피인용지수(SSCI)에 따르면, 「World Development」 저널은 2011년 기준으로 인용지수가 1.537점이고, 최근 5년간은 2.180점을 기록한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물론 행정학과 정책학분야의 학술지도 국제개발행정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고는 있지만, 국제개발행정으로서 주된 주제로 다루는 논문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학술지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국제개발행정론 분야에만 집중하는 이 분야의 최고권위지를 택하는 것이 이 분야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 더 유의미하리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행정의 일부 측면이 아닌 다양한 측면을 아우를 수 있어야 개발도상국 정부경쟁력의 차원이나 중요 요소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연구대상인 저널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국제개발행정론의 변천과정을 고려할 때, 과거 60년의 국제개발·행정'론과 같이 '행정'으로만 좁게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각 국가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충분히 인식한 이후에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행정'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방향설정으로부터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정책방향의 설정과 같은 초기단계의 연구 과업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본 연구가 선택한 학술지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매우 부합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학술지가 천명한 목적에서 잘 알 수 있다. 「World Development」는 '빈곤, 실업, 영양실조, 질병, 주거지 부족, 환경파괴, 무역 및 임금의 불균형, 국제채무, 성·인종에서의 차별, 군비확장주의, 내전 및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참여 부족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형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을 학술지의 독자들과 저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저널에서는 개발(development)을 국가, 경제, 정치적 연합체, 제도, 집단, 그리고 개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으로 인식한다.

「World Development」 저널은 사회과학분야 학술지로는 드물게 매월 발간되고 있으며 저널의 출간이 시작된 1973년부터 매년 12호를 발간하고 있다. 많은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면 많은 샘플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World Development」 저널에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총 2,013개 논문(키워드 미계시로 인한 데이터 누락 제외한 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시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세계 외환위기 이후, 각 나라의 정부가 국제개발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간여를 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과거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앞으로 국제개발행정 혹은 정부경쟁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를 한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논문의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목은 은유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의문형인 반어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제목이 연구자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지만, 문장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개념 중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방법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제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록(abstract)을 중심으로 논문의 개략적 내용을 파악한 후,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keyword)를 분석 자료화 하였다. 키워드는 후속연구자가 논문을 검색하는데 중요하고 용이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저자가 제시한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함축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최영출, 박수정, 201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은 한 편당 2개에서 11개의 키워드가 주어지 있다. 표1은 키워드 수별 논문 편수를 보여준다. 키워드의 수가 6개인 논문들이 전체의 43.47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키워드 수가 5개인 논문들(27.77%)과 4개인 논문들(16.34%)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논문들의 평균 키워드 수는 5.226개로 대체적으로 5-6개의 키워드들을 주로 입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들의 총 개수는 3,997개로 매우 다양한 키워드들이 사용되었다.

〈표 1〉 키워드 수별 논문수

논문의 키워드 수	키워드 개수별 논문편수	비율(%)
2	13	0.65
3	140	6.95
4	329	16.34
5	559	27.77
6	875	43.47

7	75	3.73
8	13	0.65
9	6	0.30
10	2	0.10
11	1	0.05
논문편수 합계	2,013	100
키워드 종류(가지 수)	3,997	
논문 1편당 평균 키워드 수	5.226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수와 키워드 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총 가지 수가 3,997개에 달하는 모든 키워드를 직접 활용하면 너무 복잡하고 분석에 있어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제시된 키워드를 다시 압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동의어나 유사어를 묶은 키워드 데이터와 원래 키워드 데이터의 두 가지 데이터 세트(본 연구에서는 data1과 data2로 지칭함)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원래 키워드에서 임금불평등(wage inequality), 지역불평등(regional inequality), 국제불평등(international inequality), 기회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 등의 키워드들은 서로 유사한 것인데 다른 노드(node)로 코딩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빈곤(poverty), 소득빈곤(income poverty),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 만성빈곤(chronic poverty), 빈곤구제(poverty alleviation),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등의 키워드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묶어줄 필요가 있다. 코딩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어 연구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명²⁾이 분담하여 약 10개월간 작업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상호교차 체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동의어와 유사어를 묶어서 코딩할 때 필요한 경우 논문 초록이나 때로는 논문 전문을 읽고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한 후 작업하였다.

「World Development」 저널에서 모든 키워드를 원래 그대로 추출한 데이터가 1차 자료(이하 Data1로 칭함)인데, 키워드 3,997개간의 연결 관계(link)가 23,422개에 달하는 자료이다. 이것은 동의어나 유사어인 키워드가 다른 노드(node)로 코딩되어 과다계상 또는 과소계상될 수 있으며 중요한 키워드들의 분석 결과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원래 키워드들은 유사한 키워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키워드들의 중요도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³⁾.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Data1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저자들 외에 이현국 박사, 김윤호(석사과정), 한병훈(석사과정), 김주희(석사과정), 김신영(석사과정), 강은영(석사과정), 김성근(석사과정)이 참여하였다.

3) Data1은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지만, 키워드를 연구자가 카테고리화하여 묶는 과정

즉, Data1의 원래 키워드들을 카테고리로 묶는 과정에서는 어의상 거의 동의어로 자명한 것을 중심으로 묶는 작업이다. 그 결과 키워드들의 수를 180개로 줄여서 분석하였다 (이하 Data2라고 칭함). 키워드 180개를 일목요연하게 논문에서 서술하는 것도 지면의 한계상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중요도(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50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맵, 연결중심성,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방법: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본 연구는 「World Development」 학술지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법을 적용하여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단일 연구를 종합하여 일정한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메타분석방법(meta analysis method)에 속한다. 메타분석방법에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다. 전형적인 메타분석방법은 경험적 연구를 한 논문들의 주요 결론(회귀계수, 유의미성, 표본)을 모아 다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연구가 질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것도 많이 있고, 통계검증방법이 다른 경우 등, 다른 메타분석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키워드를 양적인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메타연구이다.

연구동향이나 특정 텍스트가 다루는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단순한 비율을 나타내는 초보적인 내용분석법(contents analysis method)에서 시작하여 좀 더 정교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하위연구주제나 연구범위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식의 분석은 이미 행정학 분야에서 여러 번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주상현 (2002), 권경득(1996) 등은 행정학 연구의 시대별, 연구영역별, 연구방법별 연구경향 등을 기준으로 문헌분석을 하였고, 각 영역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연구가 여러 하위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파악하기 힘들에 따라, 네트워크 내용분석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최영출 박수정(2011)은 행정학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이 주로 특정 키워드의 출현빈도에 의해 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서, 네트워크 분석은 중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들과 함께 출현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얼마나 다양한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opping, 2000). 예를 들어,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빈곤”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면, 빈곤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은 빈곤의 원인과 결과, 또는 각 국가나 국제기구의 처방 등을 알 수 있다.

에서 발생할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데이터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논의는 지면 한계상 모두 제시되지는 않지만 두 데이터를 각기 분석하여 양자를 비교감안한 결과들이다.

본 연구는 「World Development」 저널에 게재된 논문초록의 키워드의 연결망을 분석함에 있어서 결속성, 중앙성, 클러스터(cluster)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서 이 저널에서 어떤 이슈(키워드)들이 서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결속성은 두 교점 또는 노드(node) 간의 가장 짧은 경로인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연결정도(degree)라고 하는데 연결 정도는 한 노드(node)이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숫자로 정의되며, 밀도, 거리, 도달가능성, 최대흐름 등으로 측정된다(김용학, 2007: 37-38; 차세영, 2011: 3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이 제시하는 키워드를 코딩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가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강도(strength)'는 관계의 세기(intensity)를 의미한다. 강도의 개념 또한 노드 사이의 연결선들을 설명하는데, 이 때 '유대강도(tie strength)'라고 불린다. 한 연결선의 강도는 한 쌍이 유지하는 관계의 수와 유형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관계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대강도는 종합적인 노드들의 결합관계(connectedness)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다.

중앙성(중심성)은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중심성 또는 집중성(centrality)'이다. 중앙성을 지역중앙성과 전체중앙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위세 중심성과 사이 중심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용학, 2007: 40-44; Wasserman & Fauci, 1994).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중앙성의 지표로서 위세중앙성과 사이중앙성을 사용하였다. 위세중앙성(Prestige index, Eigenvector)은 중심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 중 해당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는 지표이다(김용학, 2007: 43). 중요하지 않은 여러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는 것보다 연결 정도도 크고 빈도도 높은 키워드 하나와 연결되는 것이 키워드들 간의 관계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위세중앙성이다. 반면 사이중앙성은 관계흐름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 쌍의 최단경로와 그 경로가 특정 노드를 경유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사이 중앙성은 노드들의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속집단 또는 클러스터(cluster)는 집단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개념이다(차세영, 2011: 36).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연결된 거리(distance)를 기준으로 클러스터(cluster)를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INET의 클러스터 분석 기법 중에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나누었다. 이 기법은 나눌 클러스터의 수를 미리 정하면 노드 간 유사성과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지정하면 비용함수를 계산하여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분할(partition)을 하는데, 데이터 매트릭스 X와 구조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할 때 노드 i와 노드 j가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으면 $a(i,$

$j=1$ 이고 다른 클러스터에 있으면 $a(i, j)=0$ 으로 하여 일종의 상관관계 값(pseudo correlation measure)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내(within cluster)의 유사성이 클러스터 간(between) 유사성 보다 클 때 높은 상관관계 값이 도출된다. 이 때, Glover (1989)가 개발한 타부 서치(Tabu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결관계 및 중심도 등 노드 간의 관계 구조를 시각화 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MDS)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척도방식에서는 다차원 공간 안에 노드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더 ‘비슷한(similar)’ 노드일 경우 서로 가깝게 위치된다(Hanneman&Riddle: 12). 이 시각화 기법은 연결망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김용학, 2007: 204).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UCINET 6.0을 활용했다. UCINET 6.0은 다양한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Netdraw를 이용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용학, 2007: 86).

III. 분석결과

1. 개관: 키워드 지역 분포

키워드간의 네트워크 구조 파악하기 이전에 우선 관심이 되는 질문은 국제개발행정의 연구대상으로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가이다. 그것은 전쟁 등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끄는 나라일수도 있고, 그 나라 출신 학자 등 이 저널에 기고할 만한 실력을 갖춘 학자가 많은 나라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상적인 것은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 학자가 가장 많이 연구하는가를 보는 것일 것이다. 예컨대 제목에 특정 국가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와 저자의 소속국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제목은 코딩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저자의 국적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논문이 2인 이상 공저자로 되어 있고, 이들 소속기관도 단일국가기관이 아닌 국제기구 등 소속인 경우도 많아, 자료 분류와 코딩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중도에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행정 분야 연구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주목을 받는 연구대상 인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각 논문이 키워드로서 주요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전체 논문 중 1,041개(52.72%)였다. 더 구체적인 지역명(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더 늘어나며 국가명까지 포함시킨

다면 훨씬 더 많은 키워드가 집계된다. 각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분포만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더 큰 단위의 지역을 포함한 경우만 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논문들이 키워드로 포함시킨 관심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소위 저개발지역이다. 이른바 개발도상국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권인 아시아 18.28%, 아프리카 19.52%, 동유럽 1.09%, 라틴아메리카 10.83%로, 이들을 키워드로 둔 논문편수는 총 1,034편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기간 동안 발행된 전체 논문편수의 51.37%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북아메리카, OECD 국가 그룹 및 유럽연합 지역은 7개로 0.35%에 불과하다. 이중 2편은 이들과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를 한 것이다. 지역명이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지역인 경우의 나머지 48.29%에 해당하는 논문들도 많은 경우 키워드를 아래 예시한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여전히 저개발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키워드로 포함시켰다는 점은 이런 지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의미이고,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국제개발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World Development」 내 주요 지역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수

키워드	빈도(논문편수)	비율(%)
아시아(Asia)	368	18.28
아프리카(Africa)	393	19.52
아프리카, 아시아 (비교연구)	12	0.60
동유럽(Eastern Europe)	22	1.09
동유럽, 아시아 (비교연구)	1	0.05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218	10.83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비교연구)	11	0.55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비교연구)	8	0.40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비교연구)	1	0.05
<i>개발도상국 합계</i>	1,034	51.37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3	0.15
OECD	0	0.00
OECD, 아시아 (비교연구)	1	0.05
OECD, 동유럽 (비교연구)	1	0.05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0.10
<i>선진국 합계</i>	7	0.35
그 외 (지역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지역)	972	48.29
전체 논문 수	2,013	100.00

주: 각 지역 키워드가 다른 지역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한 경우(비교연구)는 전체 대비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표시하여 계산한 것임.

이것은 분석 자료로서 선정한 「World Development」가 본 연구가 보려고 하는 대상, 즉 우리나라 공식개발원조(ODA) 사업의 주요 대상국가(지역)의 개발행정을 다루는 적합한 학술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특히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 혹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높지 않은 국가들이다.

2.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시기별 연구경향 변화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국제개발행정에 대한 연구가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이다. 즉,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행정론이 상당히 복잡하게 변화해 왔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것이 연구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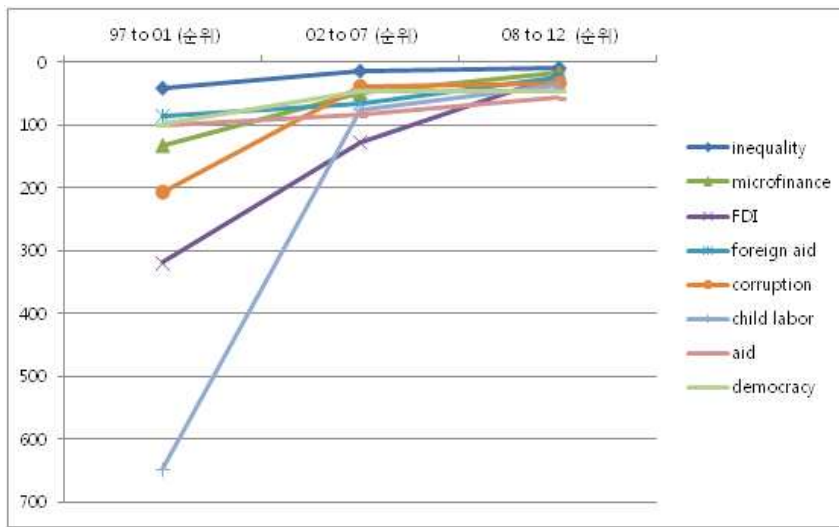
우선 한정된 지면상 3,779여개의 키워드 변화를 모두 보여주기是不可能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선택을 하여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network degree)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Data1의 3,779개의 키워드들 가운데 특히 연결 정도 순위의 변화가 큰 키워드들에 주목했다.

시대구분은 5년 정도로 하기로 하였다. 논문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별 변화는 꼭 그 해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한다는 입장에서 5년을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한 것이 <표 3>과 <그림1>이다. 각 표의 첫 번째 열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해당 키워드가 전체 키워드들의 네트워크 연결 지수 순위에서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지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열은 2002년에서 2007년, 세 번째 열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의 순위이다. 이 결과를 통해 주요 키워드들의 연결 정도 순위가 세 시기 동안 얼마나, 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지속적으로 순위 상승한 키워드 (Data 1)

키워드	순위		
	1997년-2001년	2002년-2007년	2008년-2012년
불평등(inequality)	41	13	8
소액금융(microfinance)	132	49	16
해외직접투자(FDI)	318	127	21
해외원조(foreign aid)	85	65	24
부패(corruption)	206	38	33
아동노동(child labor)	647	75	37
민주주의(democracy)	98	46	45
토지소유권(land tenure)	97	68	63
원조(aid)	100	84	57

〈그림 1〉 순위 상승 그래프



우선 1997~2001의 시기에도 전체 순위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41위의 연결 정도를 가졌던 불평등의 경우 점차 순위가 상승하여 2008~2012 시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이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 다양한 키워드들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고 그 빈도와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불평등이라는 키워드가 1997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늘 다양한 연구주제, 다양한 관심사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속적으로 순위가 증가한 다른 키워드들 역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 개념들임을 의미한다.

가장 급격한 순위 상승이 나타난 키워드는 아동 노동(child labor)이다. 첫 번째 기간에는 647위라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순위에서 시작했으나 세 번째 기간에는 37위라는 상위권으로 그 순위가 수직상승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키워드는 해외직접투자(FDI)로, 318위에서 21위로 뛰어올랐다. 불평등(inequality)이 늘 상위권에 위치 하며 지속적인 연구 관심사였던 것에 비해 이 두 키워드는 첫 번째 시기에서 세 번째 시기에 이르는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과 다루어진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으로 상대적 빈도가 떨어지는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표 4와 그림2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키워드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급격한 순위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키워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첫 번째 시기 61위라는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세 번째 시기에 이르면 2,017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이 1990년대의 외환위기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점점 그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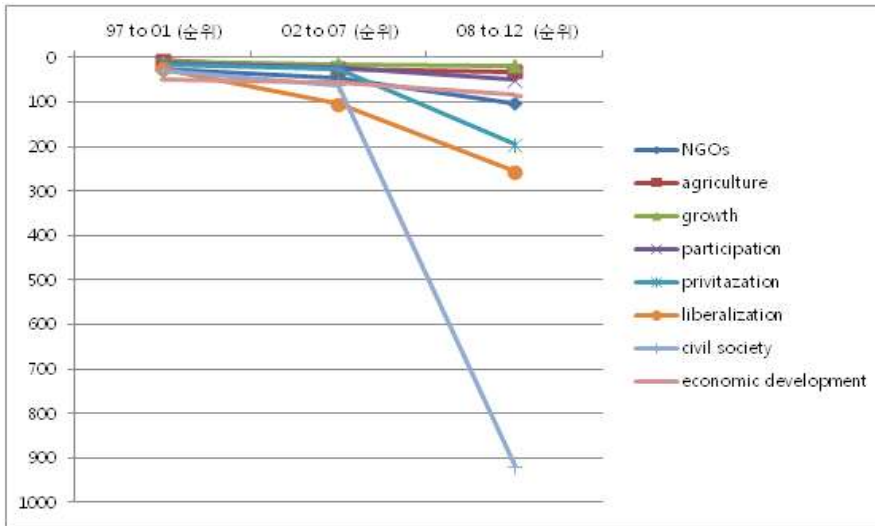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찬가지로 도시(urban)라는 키워드 역시 80위에서 1,604위로, 민영화(privatization)는 15위라는 높은 순위에서 195위로 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city planning)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도시개발, 도시문제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 적실성을 잃어간다는 것과, 그동안 선진국을 모방하여 공공서비스의 주제를 민영화하는 것을 처방하던 것에 대한 회의론이, 국제개발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세력을 얻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 개혁 등도 아울러 하락하였다. 정부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간의 인식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추측된다.

〈표 4〉 지속적으로 순위 하락한 키워드(Data 1)

키워드	순위		
	1997년-2001년	2002년-2007년	2008년-2012년
비정부기구(NGOs)	27	45	103
농업(Agriculture)	7	25	31
성장(Growth)	10	15	18
참여(Participation)	13	24	51
민영화(Privatization)	15	26	195
개혁(Reform)	24	277	676
신용(Credit)	26	98	211
시민사회(civil society)	30	62	919
재산권(property rights)	44	56	83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48	55	84
국제통화기금(IMF)	61	484	2,017
인플레이션(Inflation)	79	383	470
도시(Urban)	80	134	1,604
효율성(Efficiency)	91	111	170

〈그림 2〉 순위 하락 그래프



이상과 같이 순위가 상승한 키워드들과는 반대로 최근에 가까운 시기로 올수록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간 주제는 구체적인 연구주제들의 부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연구주제들에서 다루어지는 횟수와 연결된 다른 키워드들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중심성(Centrality)분석

네트워크 분석이 고전적 내용분석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 개념(키워드)간의 연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노드(node)들은 각각의 키워드를 나타내며, 노드의 크기는 출현 빈도가 크고 작음을 의미한다. 연결된 선의 굵기는 각 노드들 간의 연결 빈도를 의미한다. 즉, 노드의 크기가 큰 경우 해당 키워드가 논문들의 키워드로 포함된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연결된 선이 굵은 경우는 연결된 두 키워드들이 한 논문에서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연구 주제 안에서 연결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의 표5는 유사 키워드를 묶은 Data2의 분석결과이다.4) 불평등(inequality)이 연결정도,

위세중앙성, 사이중앙성 모두에서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원래 키워드들 중에서 임금불평등(wage inequality), 지역불평등(regional inequality), 국제불평등(international inequality), 기회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 등의 키워드들을 묶은 것이다. 이렇게 묶여진 결과 원래 키워드로 분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난 것이다. 원래 키워드로 구성된 Data1의 분석에서도 불평등은 두 번째로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나타냈는데, 국제개발행정연구에서 있어 가장 다양한 주제와 관련되어 나타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구제(poverty alleviation)도 마찬가지로 Data1과 Data2 모두에서 네트워크 중심성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부록 참조). 또한, 연결정도, 위세중앙성, 사이중앙성 모두에서 높은 네트워크 중심도를 나타냈다. 이 키워드는 Data1에서 빈곤(poverty), 소득빈곤(income poverty),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 만성빈곤(chronic poverty), 빈곤구제(poverty alleviation),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등의 키워드들이 묶인 것이다. 세 번째로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는 키워드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인데,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성장(growth), 경제성장(economic growth) 등의 키워드를 묶은 것이다. 그 밖에 키워드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묶여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Data1에서의 결과와 Data2에서의 결과가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들을 묶은 것이므로 네트워크가 과다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적어 더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원래 키워드들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들이 서로 다른 노드로 코딩됨으로서 과다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원래 키워드로 한 Data1과 묶은 키워드로 구성된 Data2의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에서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본 연구가 많은 논문 편수와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표본 수를 크게 하는 표집방식에 의해 상술한 오류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Data1과 Data2의 분석결과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것은 키워드를 묶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오류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4) 원래 키워드로 구성된 data1과 묶은 키워드로 구성된 data2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주요 키워드들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두 데이터 모두에서 빈곤, 불평등, 경제성장 등의 키워드들이 가장 중심성이 높은 최상위권이다. 그 외에도 여성, 세계화, 제도 등의 키워드들도 두 데이터 모두에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 중심성이 높은 순서 (Dat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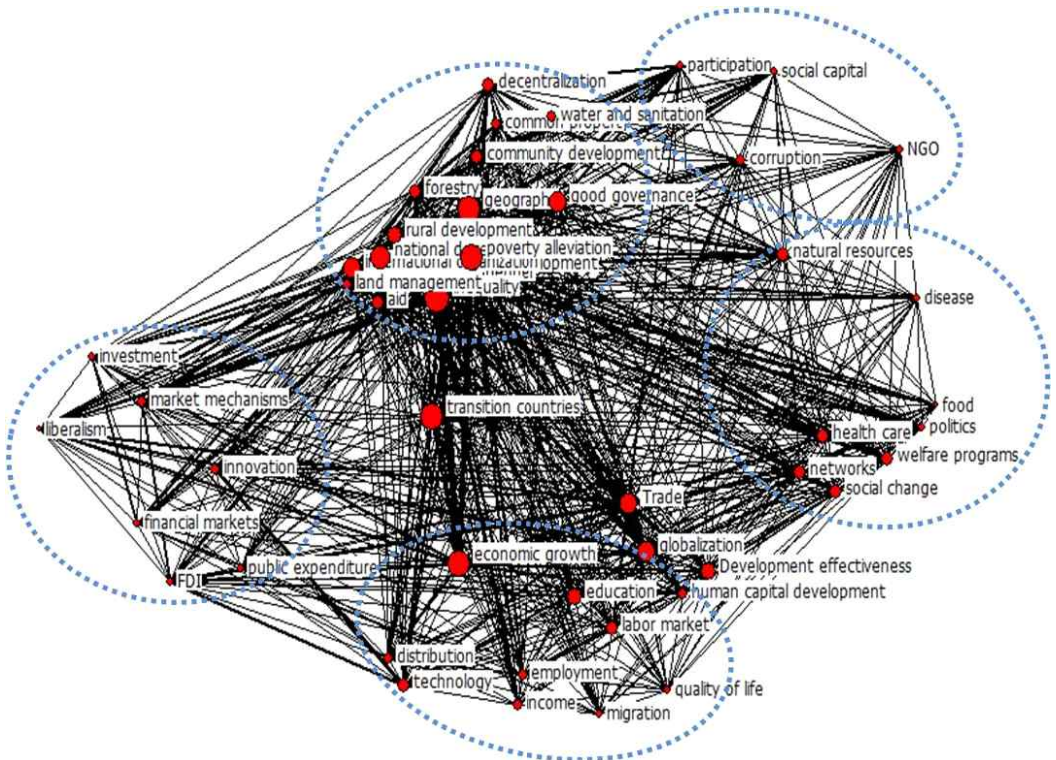
키워드	연결 정도 :Degree	위세 중앙성: Eigen value	사이 중앙성 :Between ness	키워드	연결 정도 :Degree	위세 중앙성: Eigen value	사이 중앙성 :Between ness
1. 불평등 (inequality)	237	0.385	44.641	28. 복지사업 (welfare programs)	61	0.094	16.981
2. 빈곤구제 (poverty alleviation)	204	0.339	37.588	29.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76	0.093	22.253
3.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198	0.338	34.328	30. 인적자본 (human capital development)	57	0.093	13.328
4. 농업발달 (agricultural development)	170	0.257	26.93	31. 혁신 (innovation)	69	0.093	11.863
5. 세계화 (Globalization)	141	0.24	26.381	32.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68	0.091	14.007
6. 지리 (Geography)	159	0.223	36.16	33. 정치 (politics)	49	0.087	8.385
7. 무역 (Trade)	133	0.194	26.781	34. 분배 (distribution)	49	0.087	14.056
8. 삼림 (Forestry)	112	0.16	14.519	35. 참여 (Participation)	61	0.083	8.306
9. 여성 (Gender)	103	0.158	23.703	36. 식량 (Food)	50	0.081	6.117
10. 제도 (Institution)	115	0.152	33.039	37. 이민 (Migration)	51	0.077	10.509
11.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85	0.131	23.635	38.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s)	54	0.077	9.385
12. 전환국가 (transition countries)	90	0.12	39.251	39. 공유재 (common property)	52	0.076	9.042
13. 보건 (health care)	75	0.118	15.021	40. 삶의 질 (quality of life)	47	0.076	8.31
14. 자유화 (liberalism)	61	0.115	5.229	41. 네트워크 (Networks)	52	0.076	15.245
15. 시장매커니즘 (market mechanisms)	77	0.115	10.39	42. 공동체발전 (community development)	57	0.069	14.719
16. 원조 (Aid)	74	0.113	16.103	43. 물과 위생 (water and sanitation)	45	0.066	9.107
17. 토지관리 (land management)	72	0.113	12.131	44.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48	0.062	8.658
18. 국가발전 (national development)	80	0.11	29.356	45. 공공지출 (public expenditure)	43	0.061	10.607
19.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76	0.108	20.848	46. 사회변화 (social change)	45	0.058	13.349
20. 분권화 (decentralization)	80	0.108	14.689	47. 투자 (Investment)	43	0.057	7.639
21. 소득 (Income)	63	0.108	11.14	48. 질병 (Disease)	41	0.054	10.301
22. 교육 (education)	73	0.107	24.905	49. 비정부기구 (NGO)	40	0.052	7.654
23. 노동시장 (labor market)	71	0.105	13.891	50. 부패 (Corruption)	45	0.05	16.869

24. 기술 (technology)	76	0.102	13.712	최소값	40	0.05	5.229
25. 해외직접투자 (FDI)	65	0.099	8.145	최대값	237	0.385	44.641
26. 발전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70	0.098	20.771	표준편차	44.978	0.075	9.686
27. 고용 (Employment)	57	0.097	13.026	평균	80.4	0.121	17.26

3) 네트워크 맵 분석

중심성의 비교에서 나아가 키워드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맵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는 Data2의 네트워크 맵으로서 각 키워드들 간의 연결관계와 연결강도, 그리고 거리를 나타내준다. 키워드들 중 연결 정도(Network Degree)가 높은 키워드 50개를 선별한 후, 다차원척도(MDS) 방식으로 네트워크 맵을 그린 것이다.

〈그림 3〉 네트워크 맵 (Data 2)



네트워크 맵에서 더 가까이 위치한 노드(키워드)들은 네트워크에서 서로 더 가까운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몇 개의 노드들이 어느 지점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노드들 간에 네트워크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Data2의 분석 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맵의 우측에는 질병(disease), 식량(food), 보건(health care) 등의 키워드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education), 인적자본(human capital development), 노동시장(labor market), 삶의 질(quality of life), 이민(migration), 수입(income), 등의 키워드들은 맵 상에서 하단에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좌측하단에 투자(investment), 기술(technology),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 자유주의(liberalism),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등이 집중되어 있다. 중앙상단에서는 토지관리(land management), 지역사회발전(community development), 삼림(forest), 국가발전(national development), 원조(aid),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등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키워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체로 보건, 교육 및 인적자원, 경제문제, 지역발전, 등 4가지 정책영역이 국제개발행정의 주요 분야로서 하위 개념 간 서로 밀접하게 연구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각화된 맵 상에서 직관적으로 그룹을 나누는 것보다는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군집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ata2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클러스터 개수는 연구자를 연구자가 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맵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7개의 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7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도록 지정하여 최적화(optimization) 분석을 하였다. 표6은 클러스터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맵에서 눈으로 확인하여 표시한 그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클러스터와 구성요소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구성 노드(키워드)
클러스터 1 (경제와 개발)	자유화(liberalism), 경제성장(economic growth), 무역(Trade), 해외직접투자(FDI), 세계화(globalization),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s), 원조(aid), 불평등(inequality), 혁신(innovation), 제도(institution),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빈곤구제(poverty alleviation),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기술(technology), 전환국가(transition countries), 농업발달(agricultural development), 토지관리(land management), 지리(geography),
클러스터2 (보건)	질병(disease), 식량(food), 보건(health care) 발전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클러스터3 (자연환경과 공동체)	삼림(forestry),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공유재(common property), 공동체발전(community development), 분권화(decentralization), 참여(participa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클러스터4 (정치발전)	부패(corruption),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비정부기구(NGO), 정치(politics), 사회변화(social change)
클러스터5 (사회복지)	이민(migration), 네트워크(networks),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s), 복지사업(welfare programs)
클러스터6 (재정)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투자(investment), 분배(distribution), 국가발전(national development)
클러스터7 (교육노동)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여성(gender), 인적자본(human capital development), 소득(income, 노동시장(labor market), 삶의 질(quality of life)

<표 7>은 각 클러스터의 밀도 분석 결과이다. 각 클러스터에서 구성 노드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에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클러스터 1(경제와 개발)의 밀도가 3.879로 가장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클러스터 4(정치발전)의 밀도가 1.800으로 가장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클러스터 밀도 분석

	1	2	3	4	5	6	7
1	3.879	1.583	1.438	1.233	1.306	1.694	1.635
2	1.625	2.833	0.406	0.800	0.938	0.250	0.964
3	1.465	0.406	2.964	1.075	0.625	0.719	0.661
4	1.233	1.000	1.025	1.800	0.550	0.550	0.486
5	1.306	0.875	0.719	0.450	2.000	0.688	0.929
6	1.694	0.250	0.719	0.550	0.688	2.167	0.964
7	1.738	0.964	0.643	0.514	0.929	1.000	2.595

클러스터 분석의 결과는 국제개발행정의 하위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구성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중요한 것은 각 해당 클러스터 내의 구성 노드(키워드)들은 서로 유사성 내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므로 국제개발행정 관련 논의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일부 누락하면, 그만큼 완결성이 부족한 정책이나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발전을 연구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체계를 구성할 때도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정보이다.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같이 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하고 할 때, 또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표와 같이 각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효율적인 지표구성을 위해서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요소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때, 같은 클러스터 내의 다른 요소를 대리지표나 간접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그러한 지수화를 직접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각종 발전, 경쟁력 지표의 산출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들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나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제저널이 가진 문제의식과 인식을 종합해 본다는 함의를 갖는다. 본격적으로 원조공여국이 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행정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고,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도빈(2011:4-5)은 비교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의 내재된 본질에 대한 이해, 미국중심의 발전론적 시각의 탈피, 국제화에 따른 상호간 교훈과 지식 획득, 비교의 가능성 증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각 국가가 가진 행정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요소에 대한 이해가 GIMF), 시민사회, 개혁 등은 하락하였다. 중심성 분석과 네트워크 맵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것은 불평등, 빈곤구제, 경제성장, 농업발달 등이 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라는 점과, 나아가서 개발, 보건, 교육, 등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연구되는 주제(키워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 아울러 함께 고려할 변수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지표체계를 구성한다면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주자인 하나의 키워드만을 포함시켜 다른 것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World Development」 저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행정학이 국제개발행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주목한해야 할 세부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가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가 공식개발원조(ODA)를 제공하면서, 이들 정부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각 국가의 정부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때에도 과연 본 연구가 밝

혀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즉,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기존 국가경쟁력 지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발전단계에 있어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시각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고, 준비·도약기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준비·도약기의 국가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도를 잘못 예측하거나, 필수 요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World Development」 저널의 경우,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럽이나 북미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준비·도약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정부경쟁력 요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키워드를 통한 분석결과는 실질적인 정부경쟁력의 요소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시각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시각이 2000년 UN에서 채택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및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 도출이나 지수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와 같이 논문기고자들의 시각을 분석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OEC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들 전문가적 지식을 확산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Reinalda Bob and Bertjan Verbeek, 2004). 단, 국제개발행정 관련 학술지는 무수히 많으며 각 학술지마다 지향하는 이념이나 학자들의 국적이나 지역의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World Development」 저널이 대표적인 학술지라 할지라도, 이 분야의 모든 경향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137-164.
- 고길곤·박세나. (2012).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3): 35-66.
- 고재경·이미홍. (2010).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지역 환경거버넌스 특성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1), 151-181.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 (1967-1995) 을

-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4139-4153
- 김시윤. (2004). 국가와 경제발전: 약탈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8(2): 203-223.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판석·홍길표. (2011).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한국의 철강, 통신, 전력산업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1-27.
- 남궁근. (2010). 행정조사방법론, p. 335. 서울: 법문사.
- 박치성·오재록·남주현. (2011).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51-82.
- 산업정책연구원. (2003). 「2003 IPS 국가경쟁력 랭킹 발표」. 산업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2008).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
- 알프레드 Ho·임도빈. (2012). 정부경쟁력(Governmental competitiveness)의 개념정립: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50(3): 1-34.
- 윤수재·김지수. (2011). 중앙정부 정책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고객과 외부전문가의 인식분석 -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133-161.
- 이창길. (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44(3), 165-189.
- 임도빈. (2011). 비교행정강의, 서울: 박영사.
- 주상현. (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최근 7년 (1995-2001) 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6.
- 차세영. (2011). 조선초기 중앙행정기구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출·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123~139.
- 최영출. (2009).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 41-63.
- 황창호·장용석. (2011). 정부의 정책사업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분석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31-62.
- Ake, C. (1996).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Af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Amsden, A. (1996).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Policy: East and West. JPRI Critique, 3(8).
- Berger, T., & Bristow, G. (2009). Competitiveness and the Benchmarking of Nations – A Critical Reflection.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Nov2009, 15(4): 378-392.
- Chang, H. J.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nthem Press.
- Cheng, T. J. (1990). Political Regim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G. Gereffi & D. Wyman(eds.), Manufacturing Miracles: paths of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139-17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 A. (1981). Why isn't the whole world develope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1(1), 1-19.

- Easterly, W. (200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economists'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in the tropics*. Cambridge, Mass: MIT Press.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nneman, Robbert A. and Riddle, Mark(연도).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 Haque, M. Shamsul. (2006). *The Growing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Self-reliant Development in Developing Nations*. In G. Mudacumura and M.S. Haque (eds), *Handbook of Development Policy Studies*. New York: Maecel Dekker, 535-550.
- Heady, F. (1966).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 J.: Prentice-Hall.
- Im, T & Park, J. (2010). *Korea's Experiences with Development: Revisiting MDGs from a Time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5(3), 125-145.
- Johnson, C.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Odyssey of a concept*. *The developmental state*, 32-60.
- Killick, T. (1983). *Development Planning in Africa: Experiences, Weaknesses and Prescriptions*. *Development Policy Review*, 1(1), 47-76.
- Kwon, H.-J. (2010). *Implications of Korea's Saemaul Undo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5(3), 87-100.
- Lall, S. (2001). *Competitiveness Indics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Development*, 29(9): 1501-1525.
- Leftwich, A. (1995). *Bringing politics back in: towards a model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1(3), 400-427.
- Marglin, S. A. & Schor, J. B. (1991).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Matthews, S. (2004). *Post-development theory and the question of alternatives: a view from Africa*. *Third world quarterly*, 25(2), 373-384.
- Nelson, J. M. (1990). *Economic crisis and policy choice: The politics of adjustment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Öniş, Z.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24(1), 109-126.
- Park, S. (2011). *Government's Role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from a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s Hypothesis*.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6(3), 115-128.
- Pieterse, J. N. (2000). *After post-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1(2), 175-191.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 Sage.
- Riggs, F. (1964).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of Prismatic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Anchor Books.
- Sen, G., & Grown, C. (1988). *Development, crises and alternative visions: Third World women's*

perspectives. Earthscan.

- Sinha, A. (2003). Rethinking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Divided leviathan and subnational comparisons in india. *Comparative Politics*, 459-476.
- Stiglitz, J. E. (1996). Some Lessons from the East Asian Miracl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1(2): 151-177.
- Storey, A. (2000). Post-development theory: romanticism and Pontius Pilate politics. *Development*, 43(4), 40-46.
- Thomas, A. (2004). 'The Study of development', Paper presented for session 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London.
- Toigo, P. & R. Woods. (2006). Public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OECD Journal on Budgeting*, 6(4): 63-102.
- Uma Kothari (2005) "A radical history of development studies: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ideologies" edited by Uma Kothari 「A Radical History of Development Studies」
- Wasserman, Stanley & Faust, Katherine.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Cumings, M.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 Ziai, A. (2007). *Exploring post-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 Routledge.

〈부록 1〉 Data 1의 중심성 분석

〈표 8〉 Data1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 (중심성이 높은 순서)

키워드	연결 정도 :Degree	위세 중앙성: Eigen value	사이 중앙성 :Between ness	키워드	연결 정도 :Degree	위세 중앙성: Eigen value	사이 중앙성 :Between ness
1. 빈곤 (Poverty)	227	0.569	156.374	29. 규제 (Regulation)	21	0.029	4.1
2. 불평등 (Inequality)	99	0.455	26.031	30. 타겟팅 (Targeting)	21	0.123	2.233
3. 성장 (Growth)	75	0.306	26.343	31. 아동노동 (child labor)	20	0.056	1.541
4. 여성 (Gender)	68	0.159	41.81	32. 생계 (Livelihoods)	20	0.084	5.053
5. 발전 (Development)	67	0.182	23.951	33.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20	0.043	11.26
6. 세계화 (Globalization)	66	0.218	39.025	34. 부패 (Corruption)	19	0.036	4.674
7. 제도 (Institutions)	66	0.108	52.999	35. 삼림파괴 (Deforestation)	19	0.06	8.989
8. 교육 (Education)	64	0.165	31.722	36. 혁신 (Innovation)	19	0.048	2.03
9. 농업 (Agriculture)	53	0.146	22.414	37. 시민사회 (civil society)	18	0.026	3.458
10.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53	0.112	53.377	38. 해외직접투자 (FDI)	18	0.026	6.892
11.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50	0.159	28.702	39. 소액금융 (Microfinance)	18	0.075	2.342
12. 거버넌스 (Governance)	50	0.064	32.46	40.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18	0.026	5.639
13. 보건 (Health)	50	0.168	16.165	41. 집단행동 (collective action)	17	0.023	5.946
14. 무역 (Trade)	40	0.118	19.645	42. 보존 (Conservation)	17	0.064	3.098
15. 환경 (Environment)	39	0.109	26.36	43. 이주 (Remittances)	17	0.058	1.328
16. 분권화 (Decentralization)	36	0.038	25.235	44. 토지소유 (land tenure)	16	0.023	1.963
17. 참여 (Participation)	34	0.054	10.246	45. 고용 (Employment)	15	0.046	0.786
18. 민주주의 (Democracy)	33	0.046	13.067	46. 공공기반시설 (Infrastructure)	15	0.034	3.481
19. 소득분배 (income distribution)	31	0.148	4.575	47. 자유화 (Liberalization)	15	0.031	3.251
20. 재산권 (property rights)	30	0.065	6.565	48.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14	0.02	6.653
21. 민영화	26	0.048	10.933	49. 취약성	14	0.056	2.779

(Privatization)				(Vulnerability)			
23.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25	0.062	20.129	50. 신용 (Credit)	13	0.024	5.529
24. 빈곤완화 (poverty reduction)	25	0.029	17.465	51. 식량안보 (food security)	10	0.035	2.286
25. 해외원조 (foreign aid)	24	0.053	4.502	최소값	10	0.02	0.786
26. 이민 (Migration)	24	0.076	2.335	최대값	227.000	0.569	156.374
27. 생산성 (Productivity)	22	0.038	18.455	표준편차	34.171	0.105	24.281
28. 원조 (Aid)	21	0.056	9.807	평균	35.840	0.096	16.720

ABSTRACT

A Meta Analysis of Development Studies: From Government Competitiveness Perspectives

Tobin Im, Wonhyuk Cho, Seyeong Cha, Jisu Jeong, and Min-ah L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studies on development administration, a text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eywords appearing in the articles published in *World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journals in the field. A total of 2,013 articles having 3,779 keywords published from 1997 to 2012 were used. There were significant fluctuations in network centralities of keyword analyzed categories of major keywords clustered from the original key words, which indicates the changes of research interests over the time periods stud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ave implications for strategies in developmental issu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composition of constructs in development indice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icators.

【Keywords: development administration, network analysis, world development】